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5(금) ~ 2024.4.11(목)

제공일시 2023 04 19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5(금) ~ 2024.4.11(목)

제공일시 2024 04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환경보호청, "화학공장 암유발 독성배출 줄인다"… 새 규정 확정

(포인트경제 2024.4.10) 심성필 기자

- 9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0개 이상의 미국 화학공장에서 암과 관련된 독성 배출을 줄이고, 위험한 오염으로부터 산업 현장 인근 거주 지역 사회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이날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환경보호국(EPA)이 확정한 이 규정은 걸프 연안을 따라 산업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에틸렌 옥사이드(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와 클로로프렌(Chloroprene)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강화된 규정은 독성 오염물질을 연간 6200톤 줄이고, 에틸렌옥사이드와 클로로프렌 배출량을 80% 줄이게 됨

2. 일본, TSMC 2공장에도 6조 보조금… 글로벌 '칩 워' 끼어드나/TSMC에 66억弗 美정부 파격지원

(한스경제 2024.4.8) 박정현 기자
(매일경제 2024.4.8) 최승진, 문가영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늘며 전세계는 '칩 워(Chip War)' 중임
-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을 방문함. 이 자리에서 TSMC는 2공장을 1공장과 인접한 곳에 짓겠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2공장에도 보조금 지급 의사를 밝힘
- 일본 정부는 1공장에 최대 4760억엔(약 4조243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공장에 최대 7300억엔(약 6조5075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일본은 반도체 물류망 정비도 나설 계획임. 일본 물류기업인 일본통운은 일본 내 5개 지역에 반도체 물류 거점을 개설함
- 미국 정부 또한 TSMC에 66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당초 예상됐던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임
- TSMC도 이에 화답해 미국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60% 이상 늘리기로 함

3. 미국, 부유식 태양광 257억 파일럿 투자… 에너지 & 물 문제 동시 해결

(임팩트온 2024.4.9) 송준호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물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함
- 미국 내무부는 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유타주의 관개 운하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1900만달러(약 257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운하를 덮는 태양광 패널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함께 물 증발을 줄여 물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4. 유럽은행협회 ESG 규정에 반발, "지나친 규제로 미국보다 경쟁력 떨어져"

(비즈니스포스트 2024.4.8) 손영호 기자
(한국경제 2024.4.8) 김리안 기자

- EU의 ESG 규제가 유럽 내 은행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옴
-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행협회(EBF)는 유럽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EBF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유럽 내에서 적용되는 ESG 규제임
- 유럽 은행들은 EU가 요구하는 ESG 기준에 맞춘 자산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임

1. 환경부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첫걸음”

(디지털타임스 2024.4.4) 이미연 기자
(에너지신문 2024.4.4) 신석주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힘
-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함
-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협의체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짐
- 안내서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 방법론을 다룸

2.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에 40억 융자 지원

(건설타임즈 2024.4.8) 김유현 기자

- 산림청은 민간분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힘
-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임
- 융자사업자에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음

3. ‘연 310조 경제효과’… 삼성·SK·KT·네카오, AI 일상화 시대 연다

(신아일보 2024.4.4) 장민제 기자

-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AI 일상화에 나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힘
- 협의회는 총 32인으로 출범함. 공동 위원장은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음
- 민간에선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선아 카카오 대표 등 다양한 AI분야 최고 전문가 23인이 참여함

4. 환경부, 중국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10개사 기술·제품 소개

(뉴스1 2024.4.7)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오는 8~13일 중국과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 녹색기술 홍보를 위해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7일 밝힘
- 시장개척단에는 국내 기업 10개 사가 참여함
- 이들은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함

5.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확대 ‘그리드포밍 산업협의체’ 발족

(에너지데일리 2024.4.4) 송병훈 기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병설기구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4일 그리드포밍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에 관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주도의 ‘그리드포밍 산업협의체(Grid-Forming Industry Alliance, G-FIA)’를 발족함
- 협의체는 그리드포밍 장치부터 시스템, 계통운영에 관련된 산업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임
- 협의체는 향후 기술확산, 실증, 표준화, 사업화 등의 세부 분과를 구성하고, 그리드포밍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전원의 확대 및 이에 관한 산업화를 논의해 나갈 계획임

1. 최초의 태양광 EV 제조사 앱테라, 크라우드펀딩으로 446억원 이상 조달

(임팩트온 2024.4.8) 홍명표 기자

- 세계 최초의 태양광 EV를 선보이고 곧 양산에 나서는 미국의 앱테라(Aptera Motors)가 3300만달러(약 446억원) 이상의 조달자금을 확보gka
- 지속가능미디어 환경리더의 4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앱테라는 태양광 EV의 양산을 앞두고 누구든지 1만달러(약 1353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equity cloudfundig)을 실시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3300만달러(약 446억원) 이상을 조달함

2. 혼다,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배터리 생산 거점 마련 검토

(서울경제 2024.4.6) 김학수 기자

-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혼다(Honda)가 전동화 시대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 캐나다 지역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 업계에 따르면, 혼다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의 생산 거점 인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부지 파악 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새로운 공장은 혼다가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플랫폼인 '혼다 e:아키텍처(Honda e: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짐

3. 카본프리, US스틸과 손잡고 탄소포집 기술로 친환경 철강 시대 개막

(글로벌이코노믹 2024.4.4) 김진영 기자

- 탄소 포집의 선구자인 카본프리(CarbonFree)가 미국의 거대 철강 기업인 US 스틸과 획기적인 탄소 포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 계약은 매년 최대 5만t의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기 위해 카본프리의 혁신적인 스카이사이클(SkyCycle™) 기술을 활용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임
- US스틸의 게리웍스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4.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 "AI 데이터센터 구축"

(이데일리 2024.4.10) 방성훈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 2년간 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함
- MS는 일본 동부 및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임
- MS는 또, 3년간 300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재교육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임

5. 테슬라, 인도에 30억달러 투자 전기차 공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4.4) 윤재준 기자

- 테슬라가 인도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실사단을 현지로 보낼 것으로 알려짐
- 성사될 경우 인도 제조업을 키우려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게 됨
-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슬라가 공장 부지 물색을 위한 실사팀을 보낼 예정이라며, 예상되는 투자 규모가 20억(약 2조7600억원)에서 30억달러(약 4조430억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1. 롯데케미칼, 핀란드 석유화학회사 네스테와 재활용 소재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이코노믹 2024.4.9) 홍정화 기자

- 롯데케미칼이 핀란드의 석유화학 회사 네스테(Neste)와 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에서 화석 자원을 재생 가능한 원료로 대체하는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8일(현지시각) 웨이스트투데이 매거진이 보도함
- 이 협력은 롯데케미칼이 한국 사업장에서 네스테의 재활용소재(RE) 제품 라인을 사용해 다양한 일반 유형의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할 계획임

2. 삼성물산, 남부발전과 국내 최초 수소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 계약 체결

(비즈니스포스트 2024.4.8) 김홍준 기자

-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섬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8일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을 저장하고 하역 및 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의 기반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청정에너지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혼소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 공사가 처음임

3.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 선점 위한 '탄소중립 실증설비' 구축

(뉴스웍스 2024.4.7) 정민서 기자

- HD한국조선해양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를 구축함
-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울산 HD현대중공업 야드에서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 준공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힘
-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에 구축된 실증설비를 활용해 선박에 탑재될 친환경 설비를 사전 검증해, 새롭게 개발된 선종 및 친환경 기술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4. 에코밴스, 새 이름 'SK리비오'로 세계 최대 생분해 소재 공장 짓는다

(한국일보 2024.4.7) 강희경 기자

- SKC의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인 에코밴스가 'SK리비오(SK leaveo)'라는 새 이름을 갖고 신규 기업 아이덴티티(CI)를 공개했다고 7일 알림
- 새 사명은 생분해 소재 비즈니스 모델(BM)의 핵심 가치 '자연에서 분해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leave zero)'는 의미를 담고 있음
- SK리비오는 상반기 중 베트남 하이퐁시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7만톤(t) 규모의 PBAT(생분해성 플라스틱·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할 계획도 이날 알림

5.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 본격화…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담당 신설

(아시아경제 2024.4.4) 우수연 기자

- 현대차·기아가 배터리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담당 보직을 신설함
- 배터리개발센터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를 총괄하는 담당 자리를 신설하고, 양 센터를 겸직하던 임원을 담당장으로 승격시킴
- 현대차·기아가 배터리개발연구조직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룹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임
- 최적의 배터리 생산을 위해 '팹리스'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4.5(금) ~ 2024.4.11(목)

제공일시 2024 04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일본, 원자력으로 청정수소 생산 추진… 고온가스원자로 안전성 테스트 통과

(임팩트온 2024.4.5) 이재영 기자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은 일본이 차세대 원전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추진 중임
- 4일 일본 경제지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의 안정성 테스트에 성공했다며, 이르면 2028년부터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 생산 기술의 현장 실증실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함
- 지난 3월 28일 일본 원자력개발기구(JAEA)는 이바라키현에서 실험용 고온 엔지니어링 원자로(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이하 HTTR)의 안정성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힘
- HTTR는 JAEA가 개발한 고온가스로임. 고온가스로는 기존의 경수로처럼 노심(爐心, nuclear reactor core, 핵연료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영역) 냉각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 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는 헬륨 가스를 사용함. 수소 폭발이나 노심 용융(멜트다운)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경수로보다 훨씬 높은 700도가 넘는 열을 발생시키기에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일본 정부는 2022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명분 삼아 차세대 원전 개발 계획을 발표, 고온가스로, 혁신 경수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소듐냉각고속로, 핵융합로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JAEA 관계자는 약 850도의 고온에서 100% 출력을 내는 HTTR를 제어봉 삽입 없이 자연적으로 냉각하는데 성공, 정지시킬 수 있었다며 "사고 발생 시에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함
- 일본 정부는 HTTR에서 발생한 열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닛케이 아시아는 JAEA가 이르면 올해 안에 원자력 규제 당국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수소 생산 장비를 고온가스로에 연결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이르면 2028년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현장 실증실험에 들어갈 예정임
-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일본의 연간 수소 공급량을 지난해 기준 200만톤에서 2040년 1200만톤까지 6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HTTR 한 기가 발생시킬 수 있는 열은 시간당 30메가와트임. JAEA는 HTTR를 여러 대 배치해 열 출력 규모를 250메가와트로 늘리면,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20만 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산함
- 닛케이아시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높고 아직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원자력 수소 생산을 사업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지 의문이라고 보도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개발은 중단됨. 그러나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된 후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자력 연구개발을 재개함
- 기후 정책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EU도 예외는 아님. 2023년 2월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원으로 생산한 이른바 '핑크수소'도 저탄소 수소로 인정해준 것임
- 미국 또한 원자력 발전을 '무배출 청정 에너지원'으로 분류, 2022년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개보수에만 60억달러(약 8조892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